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시급”

태양광 난개발 방지 조례가 시적 효과

장수군, 기존 강화로 발전사업·개발행위 허가 대폭 감소

무주군, 지역 찾은 전북동행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에 연구용역비 3억원 반영 요청

무주군이 지난 12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2022년 연구용역비’ 3억원이 국비 예산에 반영될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무주군은 전북동행 국회의원인 유의동 의원(3선)에게 전북 지역구로 지정된 무주를 방문한 자리에서다.

지난해 경기도 평택시에서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의원이 전북동행 지역구로 무주군을 배정 받았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정신과 친호남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호남에 제2지역구 갖기 운동(호남동행 국회의원)을 추진하는 차원이다.

이날 오전 평택시의회 의원, 보좌진들과 함께 무주군을 방문한 유의동 국회의원은 태권도 성지인 국립 태권도원과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적상산성 현장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앞서 이날 무주군과 유의동 의원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황인홍 군수, 송금현 부군수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간담회’를 갖고 군정 일반현황과 현안사업을 보고 받았다.

황 군수는 “태권도 민자지구 내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단초가 마련될 연구용역비 3억원 반영 등을 위해 국민의힘이 초당적 차원에서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황 군수는 “2010개국 1억5,000만 명이 수련하고 있는 진정한 한류의 원조인 태권도가 대한민국 대표 문화 브랜드이자 미래 문화콘텐츠로 발전이 무한함에도 날로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국가경쟁력



무주군과 유의동 의원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황인홍 군수, 송금현 부군수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간담회를 갖고 군정 일반현황과 현안사업을 보고 받았다.

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 교육기관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이 절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100만 인 서명운동을 비롯한 국기원 등 국내 우수 태권도 단체들과의 협약체결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고 소개했다.

군은 적상산성 종합정비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서도 향후 국비 350억원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유의동 국회의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적상산성은 조선시대 실록을 보관했던 역사적 의의와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산성으로 무주 관광산업 발전을 앞당길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에 유의동 국회의원은 “국제 태권

도 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무주군의 방향과 움직임, 의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 부흥을 위해선 태권도 사범을 배출할 전문 교육기관 설립에 공감하고 무주군민들의 단호한 의지를 담 지도부에 전달해 좋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유 의원은 또 “무주군이 건의한 적상산성 종합정비 중장기 계획에 필요한 국비 350억원 반영도 국민의힘에서 관심있게 다룰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향후 태권시터를 꿈꾸고 있는 무주군은 이번 국민의 힘 군정간담회를 계기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비롯해 적상산성 종합정비 등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여·야 초당적 지원 요청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이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시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장수군에 따르면 민선 7기가 들어선 지난 2018년 9월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지 훼손과 주민 갈등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둘러 2차례에 걸쳐 조례를 개정하고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이격 거리와 표고 등 입지기준 등을 강화하고 태양광사업자를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제한하고 사업규모를 100kw 이내로 한정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때 주택에서 100m 이상 떨어지도록 한 이격 거리를 조례개정으로 최소 150m 이상으로 강화시켰다.

전체 면적의 2/3가 산림으로 이뤄진 장수군은 산지 훼손에 따른 토사유출, 산사태 발생 등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 전북에서 유일하게 음·면 리별로 표고를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지대가 높은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

하지 않도록 표고에 대한 입지를 제한했으며 또한 산지에 풍력발전시설 설치 시 도로나 주거밀집지역에서 2000m 이상 이격하도록 제한하여 경관 훼손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강화했다.

이 같은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장수군의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는 민선 7기에 200여 건으로 민선 6기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건수도 2014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27건이었으나 이후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14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군의 현재까지 태양광 개발사업 480건 가운데 68.1%가 민선 6기에 허가된 것이며 민선 7기에는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 기준 강화로 민선 6기 허가 건수의 29.1%에 머물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군은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과 주민 갈등, 자연 훼손 방지를 위해 허가 기준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 감독을 펼치겠다”며 “오고 살고 살기 좋은 장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 성료

올해 처음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고로쇠 완판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끝났다.

맑고 깨끗한 운장산 줄기에서 흘러 내리는 자연의 선물인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지난 8일에서 12일까지 ‘깨끗한 봄을 마시자!’를 주제로 열렸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최 이래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열려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2+1 프로모션 한정 판매 행사는 빠른 속도로 판매고를 올리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어 고로쇠 축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입증했다.

또한 축제 마지막 날인 12일에 치러진 온라인 축제는 증산기원제, 고로쇠

축제 기원 및 홍보 영상 등이 각종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와 함께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돼 축제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의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켰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국 지자체의 대부분의 축제들이 연달아 취소되는 가운데 비대면 온라인으로 펼쳐진 이번 제17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는 올해 진안군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첫 축제이자 첫 온라인 개최이니만큼 큰 도전과 모험이었다. 하지만 위원회와 군과의 협업으로 인해 코로나19로 얼룩진 마을들을 고로쇠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의회, 용담댐 광역상수도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지난 12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우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용담댐 광역상수도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용담댐 건설로 인한 인구유출, 지역경제 침체 및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현실을 언급하며 고질적인 취수문

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진안군의회 결의안은 국회·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진안군의회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하천 분야 재해복구사업 총력

진안군은 지난 12일 작년 8월 집중 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황금천 등 70개 하천의 재해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복구사업에는 국비 87억원과 지방비 15억원 등 총 102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신속한 재해 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작년 말 실시계획을 미리 마무리하고 올해 3월 본격 사업 착수 중에 있다.

특히 올해 우기 시작 전 대부분의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해 없는 안전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해 8월 집중 호우로 인해 군 내에서는 황금천 등 17개 지방하천과 예리천 등 51개소 소하천 내에 제방 유실, 하천천수시설 파손 등 57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군은 10억원을 들여 건설장비를 긴급 투입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복구를 완료한 바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마이산 암마이봉 등산로 개방

진안군은 지난해 겨울부터 입산을 통제했던 암마이봉 등산로를 15일부터 개방한다.

개방구간은 천왕문~암마이봉 정상 0.6km구간 및 봉두봉~암마이봉 구간으로 천왕문, 봉두봉 방면 2개 출입구가 개방된다.

자연휴식년제로 10년간 통제됐던 마이산도립공원 내 암마이봉 등산로는 2014년 10월 다시 개방되었으나 매년 겨울철(11월중순~3월중순) 자연공원법에 따라 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통제된다.

또한 암마이봉 등산로는 가파른 바위산으로 미끄러운 구간이 있어 우천, 안개, 호우 등의 기상여건을 고려해 동절기 이외에도 일시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봄철 탐방로 등산 시 해빙기 낙석 및 미끄러움에 유의하여야 하며, 건조한 날씨에 계속되는 만큼 산불조심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청년창업지원사업’ 본격 추진

진안군, 15~29일까지 접수... 개소 당 최대 2000만원 지원

진안군은 관내 청년사업가 육성을 통해 진안의 성장동력을 집중 지원하여 잠재 창업 기업을 발굴하는 2021년 ‘청년창업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지난 12일 청년창업의 사업의 이해도와 공정한 사업신청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첫 청년창업지원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반적인 사업 개요,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신청 방법

등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사업대상자들과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더불어 전라북도 창조혁신센터 등 유관 기관 등 정부지원 사업설명이 이어졌다.

올해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반영하여 지원기준을 기존 만 39세에서 만 45세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기존 2년 미만 창업요건을 7년으로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공정

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여 전문가평가 및 사업대상자 면접인터뷰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참여 조건은 진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후 7년 미만의 청년 창업자(만 18세 이상~만 45세 이하)를 대상으로, 사업장 개선비, 기계장치 구입비, 마케팅 활동비 등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자부담 20%를 조건으로 개소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주말제외) 2주이며 군 농촌활력화 청년일자리팀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4월중으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